

#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

**핵무기의 파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시급히 행동하여야 한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미 수만 기의 핵무기가 해체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했으며, 수십 개의 국가가 핵무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에는 약 7만 기의 핵무기가 운용됐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량은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핵무기 해체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일부 핵보유국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보유량을 확장하고 있다.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계획을 제시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세계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체 없이 폐기되기를 원하고 있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거나, 사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무기가 지구상 모두 생명에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폐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무기

핵무기는 막대한 규모의 인명 피해와 파괴를 초래하며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무기이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불구로 만드는 행위는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대한 전쟁 범죄이다.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무기는 결코 정당한 군사적 또는 전략적 목적을 가질 수 없다.

핵보유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여론조사들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보여준다. 여론을 묵살하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국가들은 자국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무기인 핵무기가 사라진다면, 인류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핵 억지력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핵 억지력” 이론을 내세운다. 이들은 자국의 핵무기가 오로지 다른 국가의 선제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도구이며,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는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 억지력을 위험하고 잘못된 안보 정책으로 본다. 또한 핵 억지력의 본질은 대규모의 죽음과 파괴의 위협에 의존하는 호전적인 접근법이다.

핵 억지력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핵무기의 존재로 분쟁이 예방되지 않았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오히려 핵무기는 긴장 상태를 강화하고 강압과 협박을 유도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

억지 이론은 핵무기가 정당하고 바람직한 안보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핵무기의 확산을 부추기고 군축을 가로막는다.

## 증가하는 핵무기의 사용 위협

우발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오늘날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계속 커지고 있다.

이는 긴박한 국제 안보 환경, 핵보유국들 사이의 긴장, 그 국가들의 핵전력 증강, 그리고 국제 규범과 제도의 약화와 같은 요인들 때문이다.

군사 영역에서 사이버 공격 역량, 자율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러한 위협을 더 증대한다.

핵무기를 몇 분 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경계 태세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미 발사된 핵탄두 미사일은 되돌릴 수 없다. 설령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핵무기가 발사됐더라도, 그 미사일은 계속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지도자들은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특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핵무기를 이용한 완전한 파괴 권한이 극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된 만큼, 순간적인 혼란이나 무자비함, 자존심이나 의사소통의 실패로 인해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전면적인 핵전쟁 위기가 수차례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2년 미국과 소련이 대치한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1945년 이후 핵무기가 분쟁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훌륭한 관리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행운에 더 가깝다. 이 위협을 제거하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행운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 사고와 실수들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고의적 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는 인적 오류, 기술적 결함, 사이버 공격, 오인 경보,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다.

1945년 이후 핵무기와 관련해 수차례 발생한 사고들, 그리고 오류로 인해 핵무기 발사 직전까지 갔던 사건들은 의도치 않게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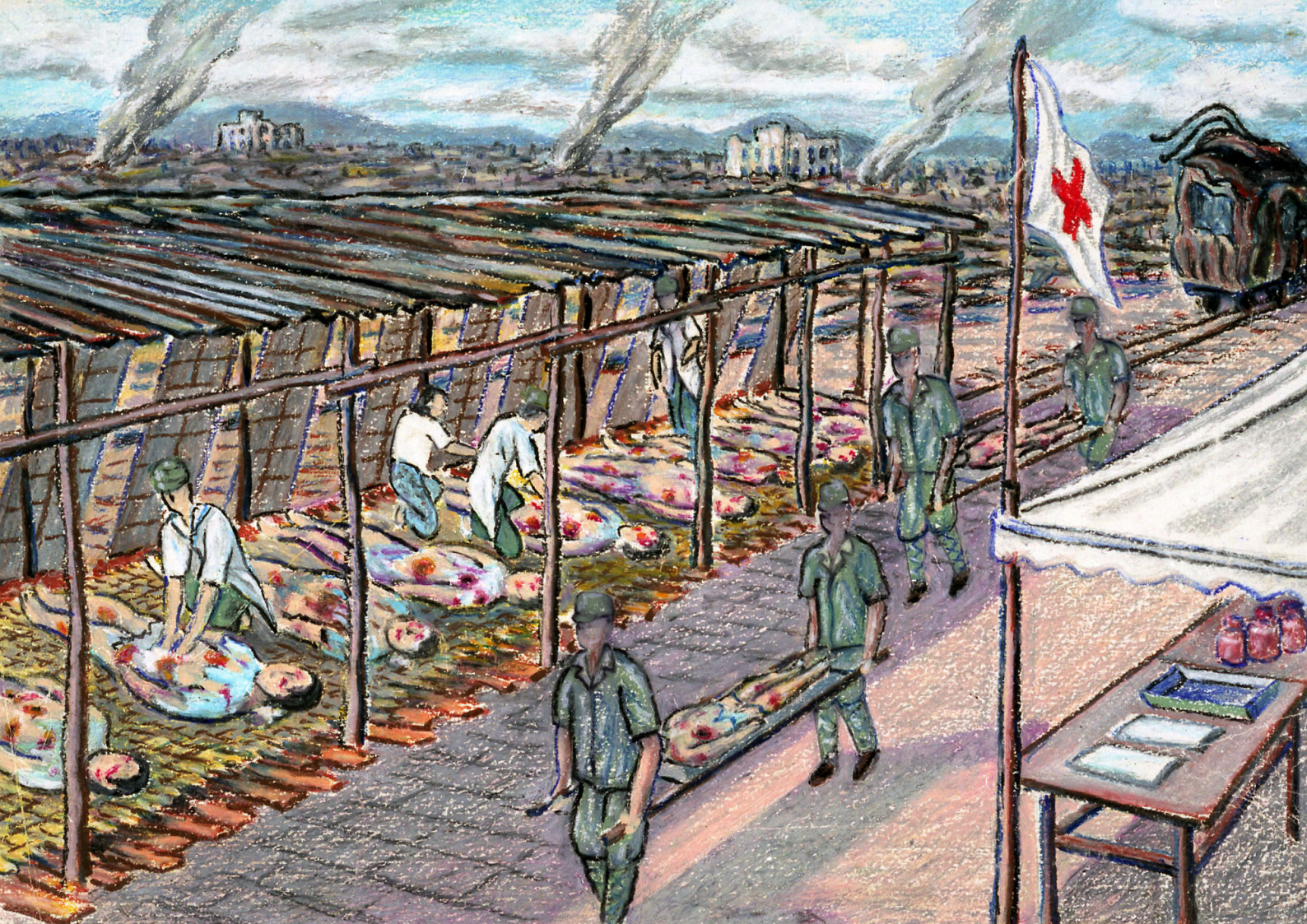
1968년에는 핵폭탄 네 발을 탑재한 미국 항공기가 화재로 인해 그린란드에 추락, 주변 지역을 플루토늄으로 오염시켰다. 폭발이 발생했지만, 핵 연쇄반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5년에는 러시아 당국이 노르웨이의 연구용 로켓을 미국 잠수함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오인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반격을 위한 발사 코드를 준비했지만, 결국 오인 경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 외에도 핵무기가 바다에서 유실된 사건, 핵무장을 한 잠수함끼리 충돌한 사건, 새 떼나 구름에 반사된 빛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오인된 사건, 그리고 훈련용 테이프가 실수로 실제 운용 중인 컴퓨터에 삽입되어 핵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 등,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6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폭격기의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핵폭탄 두 발이 지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아주 근소한 우연의 차이, 두 가닥의 전선이 교차하지 않은 덕분에 핵폭발이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미국 정부



한 히로시마 생존자가 그린 1945년의 구호소 모습. 부상자들은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다. 사진 제공: 야마오카 후미코

## 인도주의적 대응의 부재

세계 어디에서든 단 한 발의 핵무기라도 사용된다면 보건 인프라가 붕괴해 인도주의적 대응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완전 파괴 구역에 있는 병원과 약국, 소방 장비, 통신 및 교통 체계는 모두 전소되어 운용할 수 없어질 것이다.

부상자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방사능에 노출되어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단 한 발의 핵무기가 사용되어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핵전쟁의 경우 더더욱 대처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또한 그러한 대응 역량은 앞으로도 결코 구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도 “세계에 남아 있는 어떠한 의료 시설로 그런 형태의 재앙을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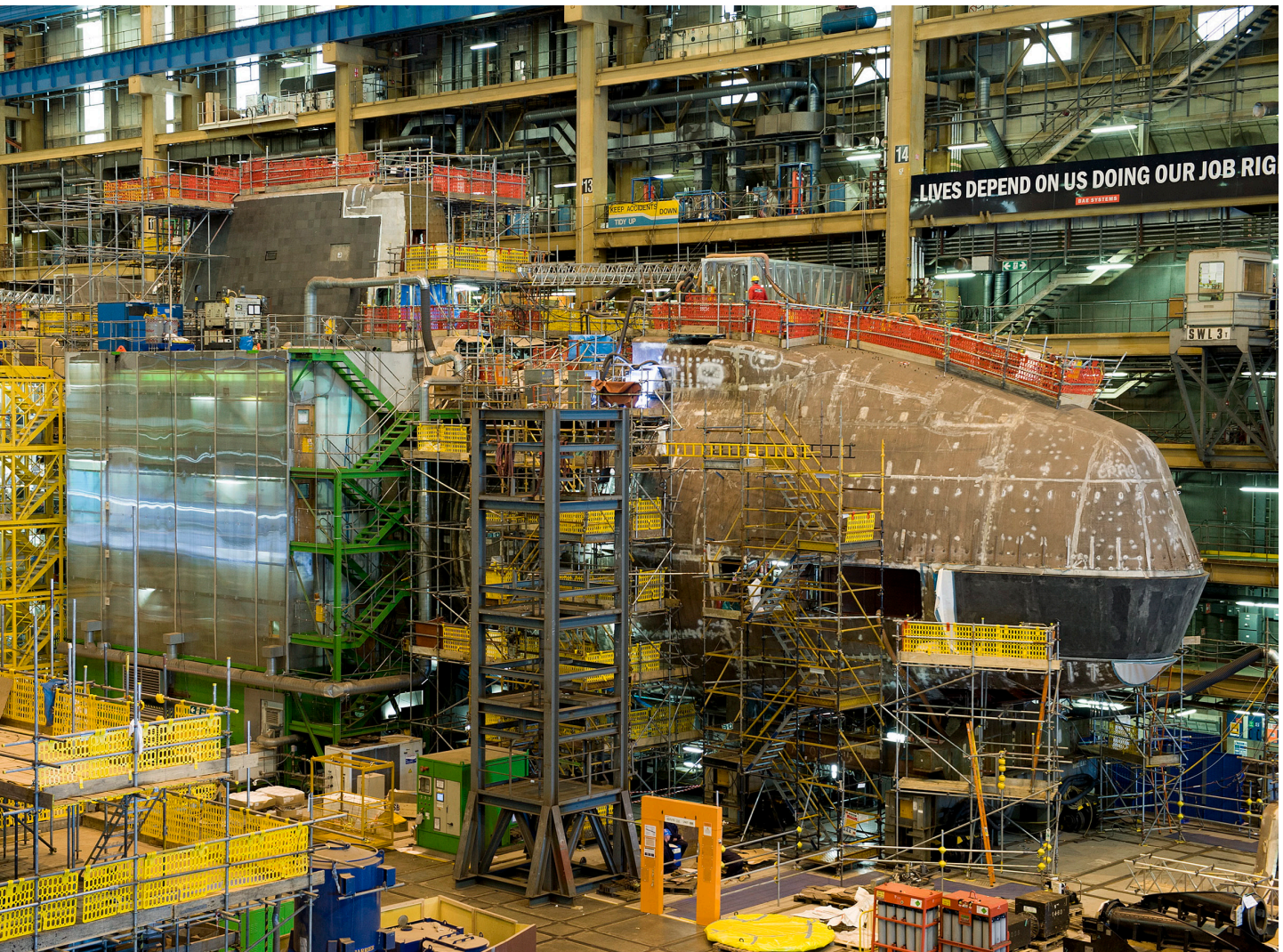
## 방공호가 도움이 될까?

핵 벙커, 즉 방공호를 많이 짓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냉전 시기에 주목받았던 방공호 시설은 핵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을뿐이다.

핵공격이 발생할 경우, 누군가가 사전에 경고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폭심지 부근에 있는 많은 벙커는 화덕처럼 변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핵무기는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 관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설령 제때 벙커를 찾아 들어가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왔을 때 마주하게 될 것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험한 환경이며, 구조 가능성도 희박하다.

영국에서 건조 중인 핵무장 잠수함. 사진 제공: 영국 정부



## 자원 낭비

핵보유국들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자국의 핵전력을 강화, 확대하고 있다. 이 돈은 보건의료, 교육, 빈곤 완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될 수 있는 자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싱크 탱크와 고등 교육 기관 또한 이에 관여하며 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투자를 중단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과학 인재들이 대규모 살상과 파괴 능력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는 대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평화를 막는 장애물

핵무기는 오늘날의 그 어떤 안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핵무기 폐기가 실현된다면 국가간 더욱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더 밀접한 국제 협력의 기회를 열 수 있다. 이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

핵무기 폐기는 국가 안보와 집단 안보의 이익을 함께 증진하는, 최고의 세계적 공동선이 될 것이다.

## 젠더 비평

핵무기 사용 의지를 드러내는 지도자들은 흔히 남성적이고, 강인하며, 결단력 있는 인물로 칭송받지만, 군축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성적이고, 나약하며, 감정적이라는 식으로 폄하되고는 한다.

더 나아가 핵무기를 둘러싼 공적 논의와 의사결정은 대체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더 큰 젠더 다양성과 포용을 보장하는 것은 군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rtists Against the Bomb' 설치 작품. 사진 제공: 미키 아나그리우스